

# 동급 최강 연비왕의 귀환...고유가 시대 '안성맞춤'

기아 SUV '더 뉴 니로' 계약 개시  
복합연비 20.2km/ℓ 상품성 강화  
실용적 소형 SUV 구매 최적 선택



기아는 최근 4년 만에 상품성을 대폭 강화해 새로운 모델로 출시한 SUV '더 뉴 니로'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계약을 시작했다. 사진은 '더 뉴 니로' 내·외부 모습. <기아 제공>

동급 최강의 연비를 자랑하는 기아 SUV 니로가 4년 만에 새 얼굴로 돌아왔다.

기아는 친환경 SUV '더 뉴 니로(이하 니로)'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최근 계약을 시작했다. 16일 밝혔다.

니로는 2022년 1월 출시한 2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약 4년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동급 최고 수준의 복합 연비 20.2km/ℓ를 확보하면서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고 최신 안전·편의 사양을 대거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니로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워크 어웨이 락 ▲스테이 모드 ▲디지털 키 2 등을 통해 한층 확장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고 ▲10 에어백 ▲스티어링 휠 그림 감지 ▲고도화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탑재로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세련된 외장 디자인·실용적인 실내 구현  
기아는 니로에 브랜드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를 반영해 세련되면서도 강인한 인상의 외관을 완성했다.

전면부는 수평·수직 라인을 강조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주행등을 적용해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인상을 구현했으며, 정교하게 구성한 전면 범퍼와 그릴 하단부로 단단한 존재감을 더했다.

측면부는 절제된 차체 라인과 함께 매끄럽게 이어지는 루프 라인이 세련된 실루엣을 강조하고, 후면부는 테일게이트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대각선 형태의 LED 리어 콤비네이션램프 그래픽이 후측면을 부드럽게 감싸 안정감 있고 넓어 보이는 느낌을 부각한다.

니로의 실내는 수평형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개방감을 강조하고, 신규 사양 소재를 적용해 쾌적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거듭났다.

기아는 니로에 각각 123인치와 123인치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결합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간결한 대시보드 구조와 함께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우수한 연비에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 탑재  
니로는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시스템 최고 출력 141ps, 최대 토크 27.0kgf·m, 최대 복합연비 20.2km/ℓ (\*16인치 휠, 산업부 신고 완료 기준)의 효율적인 성능을 확보했으며 ▲스

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하이브리드 계층형 예측 제어 시스템 ▲스테이 모드 등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이 새롭게 적용됐다.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은 전방 차량과의 거리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도로 정보와 주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회생제동 단계를 자동 조절함으로써 운전 편의를 향상시켜주며, 하이브리드 계층형 예측 제어 시스템은 목적지까지의 주행 경로와 도로 상황을 예측·분석하고 배터리 충전량을 최적으로 제어해 실주행 연비 향상에 기여한다.

스테이 모드는 정차 시(P단) 엔진 공회전 없이 일정 시간 동안 고전압 배터리 전력만으로 차량 내 여러 편의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자녀 픽업 대기 등 차량에 머무는 시간을 보

다 쾌적하게 해준다.

◇인포테인먼트 및 안전·편의 사양 강화  
기아는 니로에 신규 인포테인먼트 및 안전·편의 사양을 다채롭게 적용해 차급 이상의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니로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해 내비게이션 지도는 물론 차량의 주요 전자제어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e하이패스 기능을 적용해 실물 하이패스카드 없이도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하다.

기아는 니로에 2열 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한 10 에어백과 전 좌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를 적용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스티어링 휠 그림 감지 ▲차로 유지 보조 2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차량/측방 접근차/주위 시 대향차/회피

조향 보조 기능 포함)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전진 출차) 등 첨단 주행 및 주차 편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지원한다.

◇출시와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 전개  
니로의 판매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혜택 후 기준으로 ▲트렌디 2천885만원 ▲프레스티지 3천195만원 ▲시그니처 3천464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 적용)

기아는 니로 출시와 함께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과 구매 혜택을 운영한다.

먼저 'M할부 일반형(원리금 균등형)'을 이용하면 36/48개월 할부는 2.5%, 60개월 할부는 3.9%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잔가보장 유예형 할부'를 선택하면 36% 금리에 차량 구매가의 최대 64%를 3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어 월 납입금을 최소화하고 중고차 감가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고객이 잔가보장 유예형 할부로 차량가 2천885만원의 니로를 구매하면 36개월 동안 매달 11만원(선수수료 30% 기준) 상당의 월 납입금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기아는 고객이 보유 차량을 기아 인증중고차에 판매한 뒤 니로를 구매할 경우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을 통해 50만원의 신차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인증중고차 판매 차량 조건에 따라 보상판매 혜택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트레이드인 혜택 및 보상판매 조건은 월별로 달라질 수 있음)

기아 관계자는 "니로는 기아의 대표 친환경차로 우수한 연비와 특유의 실용성을 바탕으로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이번 니로는 한층 정제된 스타일과 강화된 안전·편의 사양을 갖춰 효율적이면서 실용적인 소형 SUV를 찾는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 현대차그룹 무인소방로봇 영상 3천만뷰 달성

고위험 현장 활약...목직감동 선사

현대자동차그룹이 소방청과 함께 개발한 무인소방로봇 기술을 소개하는 영상 'A Safer Way Home'이 공개 12일 만인 지난 15일 현재 3천만뷰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지난 3일 현대자동차그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번 영상은 매 순간 위험을 감수하며 불길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조명하듯,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고위험 현장에 대신 투입되는 무인소방로봇의 활약을 담담하게 그려내며 목직감동을 선사했다.

무엇보다 이번 영상에는 인간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되는 로봇 기술의 선한 영향력에 공감하는 4만5천개 이상의 좋은 이야기와 841개의 댓글이 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소방관에 대한 존경과 로보틱스 기술의 긍정적 활용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조회수 또한 지난 15일 오전 8시 기준 유튜브에서 3천만뷰 이상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전체 3천만뷰의 시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다양한 국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안전

을 향한 로봇 및 피지컬AI 기술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체 3천만 뷰 중 한국이 약 43%, 미국 12%, 이탈리아 5%, 스페인 4.4%, 프랑스 4%, 영국 2% 등의 순서로 많이 시청했다.

영상이 높은 관심을 끌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소방관의 고충과 안전 문제를 재조명하고 로봇 기술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스토리를 제시하며 많은 공감을 자아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상 제작에 참여한 중앙 119 구조본부의 임팔순 구조대장은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를 보며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힘이 난다"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지속적인 CSR 활동을 추진하고 피지컬AI, 로보틱스 기술 발전에 있어 '안전 최우선' 철학을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임재만 기자

현대차, 20일부터 전 부문 대규모 채용

현대차가 차세대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인재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는 오는 20일부터 4월3일까지 2주간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전 부문이 참가하는 대규모 채용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신입·경력 인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전 부문에 걸쳐 이뤄진다. 채용 공고는 171개에 달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열정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미래형 인재를 선발해 모빌리티 혁신을 함께 만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신입 특별 채용을 동시에 운영해 균형 잡힌 채용 구조를 이어간다. /임재만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